

## 사무엘상 12.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 (삼상 11 장 1-15 절)

### 들어가기

사무엘상 11 장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면서, 자신의 왕위를 반대하던 세력들도 진압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며 확립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 왕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 1. 암몬 사람들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진 길르앗 야베스 (1-3 절)

#### 1) 암몬 사람들

- ①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벤암미의 후손들 (창 19:38)
- ② 당시 저들은 요단 강 동쪽에 거주했으며,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음! (삿 3,10, 11 장)

#### 2) 길르앗 야베스

- ① ‘야베스’ 라는 말은 ‘말랐다’ 는 뜻 - 곧 지형적으로 이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을 것.
- ② 특별히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을 때,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
- ③ 그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공격을 받으며 멸절될 위기까지 처했던 사람들이었음.
- ④ 곧 저들은 공동체의 일에 비협조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음.
- ⑤ 그로 인해 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점점 더 떨어져 있게 되었고, 그 세력은 약해져 갔을 것이라 추측!

항상 사탄은 우리의 삶에 약해져 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연약해지는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저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3) 주목: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① 화친을 요청 ->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섬길 것!
- ② 거절하자 7 일의 시간을 요청 ->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파들을 찾아 다님!

#### ■ 참고: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따 뺀 후에야 언약을 맺을 것이라 위협!!

-> 당시 전투에 임할 때 대부분 왼쪽 눈은 방패 뒤에 숨기고 오른쪽 눈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른 쪽 눈의 상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 곧 노예의 상태로 만든 뒤에야 화친을 맺겠다는 것을 의미! - 결코 전쟁을 멈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함!!.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찾고 도움을 청하는 믿음보다는,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눈 앞의 위기를 피하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로 결심하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연합군 (4-9 절)**

1) 야베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돌며 도움을 청할 때, 사울은 집에서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 **생각하기 1. 그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사울은 왜 농사를 짓고 있었을까?**

**2)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울은 분노하였습니다. (6-7 절)**

- ① 인간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분노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일어나 거룩한 분노였다는 사실!!

**3) 주목 1. 한 거리 소를 취해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며 군대를 모음!**

- ① 한 거리 소 = 두 마리 소를 의미
- ② 암몬을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
- ③ 특별히 사울은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한 벌이 주어질 것을 공포!!

**4) 주목 2. 이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 두려워했다는 것!**

- 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출처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
- ② 곧 사울이 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음..

**5)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가 3 만, 그 외 이스라엘 족속이 30 만, 총 33 만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8 절)**

- ① 이 숫자는 약 490 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였음..
- ② 곧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얼마나 쇠약해 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음!!

여기서 다시금 깨달게 되는 한가지는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잠깐의 자유와 인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삶이 쇠약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24 장 16 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6)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9 절)**

- ① 사울이 당당히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믿음으로 승리를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 ② 특별히 ‘내일 해가 떠올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선포!
  - 곧 지체하지 않고 바로 공격해 구원해 내겠다는 것을 약속!!
  - 참고로 베섹과 야베스 사이의 거리는 대략 30km 로 30 만 대군이 하룻밤 만에 이동한다는 것을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음!
  - 곧 저들이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알 수 있음!!

야고보는 선을 행할 기회와 능력을 줄 때 성도든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약 4:17). 곧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면 결코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전하려 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 9:4)

**3.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며 승리하는 사울 (10-11 절)**

**1)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항복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10 절)**

➔ 사울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 - 암몬 사람들의 긴장을 풀게 만듦.

**2) 사울은 새벽부터 날이 떠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해 암몬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11 절)**

➔ 밤새 달려와 쉬지 않고 바로 공격했다는 것.. - 열심과 열정을 다시금 확인!

**4. 자비를 베푸는 사울 (12-13 절)**

**1)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던 것을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울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 ① 자신의 왕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 13 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 ② 주목 - 사울은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5.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에 모으고 사울의 왕권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15-16 절)**

1) 사울의 지위를 굳게 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함.. - 일종의 충성맹세..

2)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

-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기 위함

**✚** **생각하기 2.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